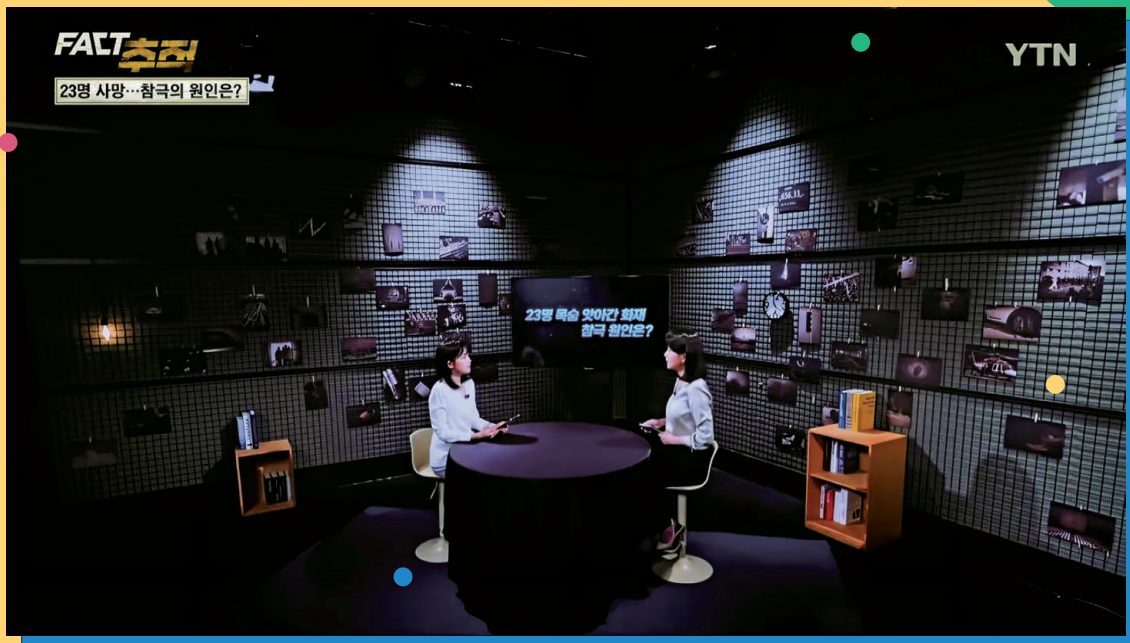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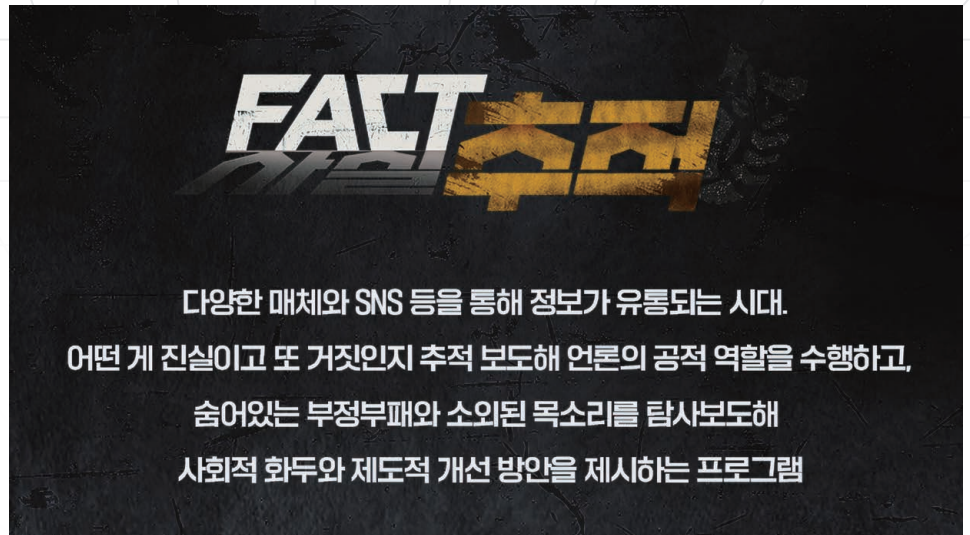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 **FACT 추적**

강보경 YTN 보도제작국 촬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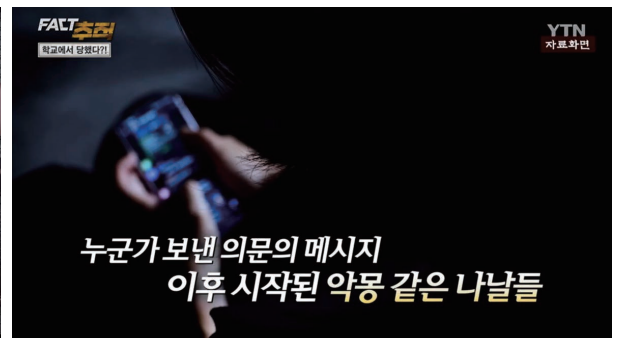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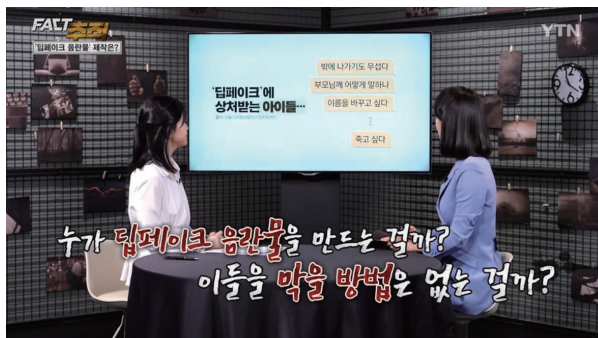


YTN은 국내 최초이자 대표적인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내 구성원 대다수도 기자로 이뤄져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지만, <팩트추적> 팀은 숨어있는 부정부패와 소외된 목소리에 집중, 조명하겠다는 목표로 신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됐다.

<팩트추적>은 기자와 PD가 협력해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현대 사회에 넘쳐나는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추적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탐사보도의 특성상 현장 접근이 어렵고 섭외 과정 역시 쉽지 않지만, 팀원들은 열정을 갖고 취재에 임하고 있다. 이는 당국의 반향과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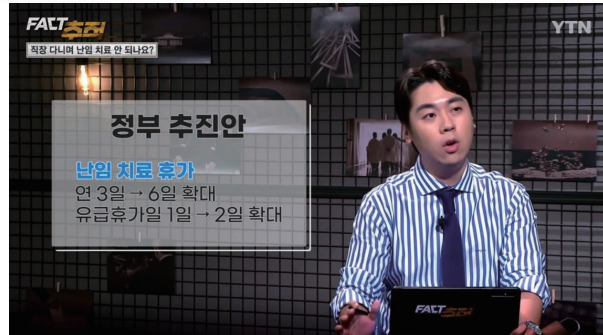
첫 방송은 지난 6월 12일 이뤄졌다. 2회에 걸쳐 4년 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처벌 법안이 시행된 뒤에도 근절되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범죄의 폐해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었다.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피해 사례를 수소문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단순히 범죄 실태를 알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법규의 한계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4년간의 관련 판결문을 모두 조사했고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맹점도 꼬집었다.

5회 <“공난포 나오면 지원 끊겨”...난임 정책 ‘사각지대’ 여전> 편에서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취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들인 돈만 줄잡아 400조 원. 하지만 당국의 정책 곳곳엔 허점이 있었다.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공난포가 나오면 대다수 지자체는 지원을 끊었고, 비급여 치료 항목 역시 여전히 많았다.

법정 난임 휴가는 턱없이 모자랐다. 미흡한 대책과 기약 없는 기다림에 난임 부부들은 힘들어하고 있었다. 난임 치료의 성지로 불리는 경주의 한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난임 부부들을 동행 취재했다. 조금이라도 아픔을 나누기 위해 같이 애쓰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팩트추적> 팀은 이들에게 난임 치료뿐만 아니라 기나긴 터널을 건디게 할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단 사실을 취재 중에 알게 됐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방문해 실제 난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례자를 만났다. 그가 난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떨쳐내고 다시 용기를 갖는 과정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난임 부부를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산림치유센터를 취재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아이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기다림을 바라는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고, 정보를 제공했다.



6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 끝나지 않은 그날의 절규> 편에서는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를 조명했다. 20대 사회초년생, 결혼 두 달 된 교사 신랑 등 안타까운 사연의 희생자들이 많았다. 재정비된 현장에선 참극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생존자들의 충격과 공포는 그대로였다. 같은 차 안에서 생사를 달리 한 이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가족을 먼저 보낸 이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해가 바뀌고 대다수의 기억 속에선 그날의 절규가 잊히고 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처벌과 미흡한 재발 방지책은 이들의 마음을 계속 할퀴고 있었다. 유족들은 법규의 사각지대에 막혀 책임자들이 합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전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오송 지하차도 외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자동 진입 차단 시설과 차량 통제 기준 등 침수 대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곳이 여전히 적잖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봉천과 의정부 백석천처럼 홍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빠뜨리기도 했다. 팩트추적팀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고집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난과 맞닥뜨린 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진은 최상위 물관리 기구의 역할 보완,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관련 법규 정비 등 중장기적 해법도 모색해, 제시했다.

FACT추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과 침수 대비 구명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지하 침수 사고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3명 사망

2022년 9월 6일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3개 아파트)

8명 사망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14명 사망



다시 보기 목록

<팩트추적>은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려운 취재 여건 속에서도 팀원들은 소기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기자와 PD 등 다양한 직군의 제작진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YTN 시청자위원회 등 사외 관계자들도 이런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매주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